

프랑스 독자는 '영웅'을 갈망한다

그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급진적인 혁명과 대담한 유행, 동시에 보수주의가 공존하는 나라 프랑스. 발자크와 지드, 사르트르와 로브그리에 등의 문호들과 함께 숨쉬어 온 프랑스. 프랑스인들은 합리성과 문체의 명확성을 사랑하며, 획일이 아닌 절제와 조화에 바탕을 둔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국민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문학성을 지닌 프랑스인들의 독서행태는 어떠할까? 과연 프랑스인들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레스프레스」 최근호는 자국민의 독서성향을 폭넓게 조망한 특집 기사를 실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피라미드 형태 이룬 독서층

프랑스에서는 매년 1만3천여종의 신간서적이 쏟아져 나온다. 이 많은 책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독자들의 눈길 한번 끌지 못한 채 휴지조각처럼 폐기처분되고 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인들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을 읽고 있다. 196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2%가 책을 산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1981년에는 74%에 이르는 인구가 책을 샀으며, 현재는 전체 인구의 약 60% 정도가 1년에 적어도 1권 이상의 책을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이하의 미성년을 제외한 유권자들을 프랑스의 독서인구라고 할 때 이들의 숫자는 약 3천8백만명에 이른다. 이들 독서인구는 대체로 꼭대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피라미드는 3등분되어 있으며, 맨 밑은 독서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대중, 가운데는 10만명 내지 20만명 정도의 중산층, 그리고 맨 위는 그야말로 엘리트로서 기껏해야 2만5천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출판의 미래를 판가름짓고 판매시장의 주 고객층을 이루는 대상은, 역시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중이다. 이들은 비평가들의 비평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비평에 의해 책을 선택하지 않을 뿐더러 작가의 이름이나 명성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의 책 선택이나 독서열은 마치 전염병처럼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번져 나가서 예상외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키곤 한다. 이들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선호한다.

일반대중이 애독하는 책을 분류하면, 첫째

엑토르 말로의 「집 없는 아이」(Sans Famille) 처럼 불행한 아이들을 등장시켜 독자의 누선을 자극하는 동정적인 소설들로, 따라서 프랑스인 대부분은 아동도서의 성인판을 애독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부류는 삶의 시련을 주제로 한 보다 심도있는 소설들로, 독자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의 고난과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스토리로부터 삶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나 깨달음을 얻곤 한다. 이런 종류의 소설들은 대개 인간의 의지력과 노력, 은총과 기적이 결합된 내용이며, 주인공 역시 구원자적인 모습을 띠게 마련이다. 세번째 부류는 영적 세계, 고통없는 세계를

프랑스인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을 읽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60% 정도가 1년에 평균 1권 이상의 책을 산다. 그럼에도 그들은 읽을거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매스컴이나 서평전문지들이 그들의 진정한 갈망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추구하는 종교적인 색채의 책들로, 최근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원예, 수선, 자녀교육, 요리책들도 꾸준히 애호되고 있는 책들인데 특히 학습참고류는 끊임없이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다.

시와 희곡 즐겨 읽는 엘리트층

이러한 독서취향은 책을 통해 일상의 근심걱정과 불안감을 달래보려는 프랑스 일반대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옛것을 그리워하는 노스탤지어도 대중의 독서성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나 향토적인 풍물들이 이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다.

피라미드의 두번째 층을 이루고 있는 중산층 독자들은, 무엇보다도 작가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해줄 훌륭한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참고서적을 수집하는데, 이런 책들은 대개 10년에 3천부가 팔릴까 말까한 전문서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산층 독자들은 자신의 독서취향을 과시하며 문화인으로서 자처하기 위해서 외향 위주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프랑스인들. 최근 들어 프랑스인의 독서열은 더욱 증가,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폐기 처분되고 있는 책들. 팔리지 않은 책들의 종착역이다.

의 독서취향에 빠질 우려가 있다.

끝으로 맨 위의 소수 엘리트층, 이들 독자야말로 '진정한 문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베스트셀러를 쫓아다니는 대중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면서 시와 희곡을 읽는다. 굳이 숫적으로 따진다면 프랑스의 진정한 시애호가들은 2천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희곡은 지금까지 푸대접을 받아온 분야이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희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독자대중은 소설류 꾸준히 읽어

지극히 프랑스적인 독서취향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것일까? 비교적 꾸준히 읽히는 종류로는 역시 공상과학소설, 정치소설, 할리퀸이나 뒤오 시리즈같은 달콤한 연애소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보다 수준높은 장르의 책들, 즉 인문과학이나 정신분석학류의 골치아픈 책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기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에 대한 반동으로, 삶의 새로운 지평과 인생행로를 제시해 주는 새롭고 특이한 문학을 원하는 프랑스 독자들의 열망 역시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현대소설에 있어서의 영웅의 부재에 환멸을 느끼

고 있으며, 줄리앙 소렐이나 엠마 보바리 이상의 주인공, 전형적인 인간을 구현한 인물 그 이상의 인간상을 목마르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나라, 그러면서도 영웅을 지니고 있지 않은 불행한 나라"라는 독일의 작가 브레히트의 말 그대로 그것이 오늘날의 프랑스이며, 이러한 갈망이 프랑스인의 독서성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대중은 영웅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작위적이며 보기에만 그럴듯한 방법으로는 영웅이 탄생되지 않는다. 스탕달이 말했듯이 프랑스인은 속임수를 지독히 혐오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매년 출간되는 3만여종(중판 포함)의 책들을 한곳에 모아 놓으면 5천 헥타르의 무성한 책숲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책들이 해마다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져가고, 그중 어떤 책들은 한동안 떠돌아다니는 화제를 모으면서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그러한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는 영원불멸한 것이 있으니, 각 가정마다 으레 한두권씩 꽂혀 있는 사전들과 지식에 대한 끝없는 열정, 그리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독서 목록이다. 이 세가지가 프랑스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책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만든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